

“사나이답게 싸우다 장렬하게 죽는다. 알겠나?” “예!” “전원 유서를 써서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 넣는다. 실시!” “실시!”

가트 입관해서 전입은 소대장의 얼굴은 별경게 상기되었다. 데프콘2 발령. 전투개시 직전 상황이다. 제대 특명을 받아놓은 고참병들도 예외 없이 완전군장을 하고 비장한 얼굴로 소대장의 지시를 듣고 있다. 이른바 8·18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1976년)이 터졌을 때의 상황이다. 입대 5개월째, 신병 티를 벗지 못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열어 몇 장의 유서를 썼다. 우리 모두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돈도 없고 뺨도 없어 최전방까지 팔려온 노예였다.

그러나 용감히 싸우다 장렬하게 죽겠다는 결의는 바뀌처럼 끈고 단단했다. 그러나 전쟁은 터지지 않았고 유서는 불태워버렸다.

지금도 유효한 오래된 농담이 있다. 병역 면제자는 신의 아들, 방위 근무자는 장군의 아들 그리고 현역병은 어둠의 자식들이란다. 20대 초반의 2-3년은 황금의 시간이다. 지적 관심, 순발력, 두뇌 회전, 집중력, 체력 등이 비수같이 날카롭고 헬리콥터처럼 역동적이다. 재벌의 자식이든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그 함량은 동등하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이 군대이다.

군대 생활이 힘든가, 출신의 고통이 힘든가?



불자 세상보기

이우상
소설가·대진대 문창과 겸임교수

조작된 ‘신의 아들’

젊은 남녀들의 논쟁을 잠시 엿들어보자.

남: 출신은 육체적 고통이 대부분이지만 군대는 지능적, 지위적, 기계화, 물상화 등 각종 정신적 불이익을 수반한다.

여: 너희는 임신 중 직장생활과 육아의 스트레스를 알지 못해.

남: 출산할 때에는 주위의 온갖 축복과 찬사를 받지만 군대에서는 온갖 수모에 극복할 것을 강요당한다.

여: 허허, 3대 독자와 결혼해 딸 한번 낳아봐!

남: 출신은 애인과의 결합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만 군대는 애인과의 결합을 부채질한다.

여: 결혼해서 애 낳아봐. 애 치다꺼리하느라 남편은 쳐다보지도 못해.

남: 출신은 자신의 인생을 위한 몸부림이지만 입대는 인생의 일부를 조건 없이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다.

여: 출신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체력단련하고 운동과 생활할 수 없나.

국민소득 3만달러가 되어 모병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병역은 의무이다. 신성한 의무이다. 출신

의 고통과 대등한 고초가 수반되는 의무이다. 그러나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즐기다보면 어둠의 자식들이 어느새 태양의 아들이 된다. 햇빛 아래 맘껏 활개치고 다닐 수 있다.

군대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졸업 시절은 밑바닥 인생이나 고참병이 되면 황제에 등극한다. 또한 군대는 수행 도량의 축소판이다. 신병 시절에는 손에 물 마를 날 없는 행자와 같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상급자가 되면 권위와 위엄을 갖춘 방장 스님이 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그릇 뽐낼이를 다듬는다. 군사문화에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은밀한 거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병역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한다. 관료의 의지와 제도의 정비로 가능한 일이다. 지도층의 솔선수범(노블리스 오블리제) 또한 필요하다. 세상 인심이 소란스러워 자이툰 부대 병사들은 따뜻한 환송도 받지 못하고 전장으로 갔다. 그들의 안락과 무사귀환을 기원한다.

국가의 힘은 복합적이다. 청년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무게를 지닌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인심은 시대상황이 만든다. 화합하는 사회라면 이웃과 아픔을 함께 할 것이고 불화의 사회라면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정치권이 내놓은 감동적 소모적 주제들로 유례없는 불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이웃에 대한 무관심'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올 추석에 예년과 달리 씩씩하고 어수선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추석은 가족 친지 단위로 화목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명절이다. 이럴 때일수록 상대적 외로움과 소외감을 갖게 되는 불우이웃이 있어 예부터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우리 국민성이었다. 그것이 현대로 이어져 추석이나 연말연시 등 명절이면 종교, 자선단체 신문 방송 등이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을 한 번씩 환기시키곤 한다.

불우이웃 돕기가 어디 추석 연말연시 등 몇 번의 명절 때만

‘한가위만 같아라’ 했으니...

떠들썩한 연예행사로 치러져서 되는 일인가 라는 의문도 있다. 지난시대 강압적 정치 아래 겉치레 눈치 보기 생색내기 등의 비자발적 자선행태가 문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웃돕기도 관주도의 반강제적 성금 모금에서 민간주도의 자발적 공동모금으로 바뀌었고 그동안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그만큼 '자발성'이란 점에서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며 이웃돕기는 연중행사로 바뀌어 가고 있다. 메스컴의 캠페인이나 기업들의 기부, 자원봉사도 연중 자발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추석을 맞는 지금 불우이웃은 더 늘어나고 왜 그들에 대한 관심은 싸늘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인가.

이웃돕기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이웃에 대한 선한 관심을 기울이며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화합하는 사회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또한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이다.

불우한 이웃을 곁에 두고 끼리끼리 즐거울 수 있다면 이는 부끄러울 것이다. 비록 불화의 시대이긴 해도 동체대비와 동사습의 가르침을 소중히 하는 불자들이 많아도 앞장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추석을 만들도록 해 보자.

김장자(김장뉴스)

독자투고

‘신행수기’ 쓰면 믿음 강해져

나는 이제 일요일엔 전철을 타지 않는다. 봉천동 집에서 우리 선원이 있는 생문동까지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간다. 또한 일요일엔에 흔쾌히 차를 운전하는 남편을 보면 참으로 고맙다. 늘 나의 후원자였지만 이런 같은 도반이 뭘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내 모습과 가끔 좌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스님의 법문을 들려주기도 했지만 한번도 함께 선원에 가기를 권하지는 않았다. 인연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이었다.

지난 7월 <현대불교>에 나의 수기 실린 뒤 남편은 스스로 같이 선원에 다니자고 했다. 얼마나 기쁘던지...

아마도 정신과 몸이 건강하게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나보다. 나 스스로도 크게 도움이 되었고 또한 나를 세상 정려하는 시간이었기에 감사하다.

그저 숨기고 싶었던 내 지난 일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나니 왠지 더 뚜렷하고 당당해졌을 거 같다. 나는 더 부끄럽지도 아프지도 않다. 그 이후 덕에 선원에서 마음공부도 했고 부처님도 만나고 그마나 이 만큼의 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스승의 날 감사의 마음을 표하려 하니 운전자가 되길까지도 다 감사한 곳이라 그만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라는 스님 말씀이 떠올랐기에. 우선(우승) 권익구 불(본) 65호

특별기고

무분별 수입 ‘불교미술품’에 전통도 불심도 멍든다

한봉석 (한국전통조각회 회장)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우수하고 독특한 우리만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이루어왔다.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전래된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는데, 특히 민족의 얼과 불교의 사상이 융합되어 탄생된 한국의 불교미술작품은 우리나라 전통미술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고 있다.

근래들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또 불교미술의 맥을 이으려는 장인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조금씩 불교미술계가 활기를 되찾는 듯 해 전통 조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값싸고 질 낮은 외래의 미술품들이 단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밀려들며,

대표적 전통의 거라 할 수 있는 인사동 앞의 대 표적 전통의 거라 할 수 있는 인사동의 삼정은 물론 성스러운 사찰 경내, 심지어는 법당안까지 침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석조, 목조에서 건축, 탱화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총망라되어 우리의 불교 미술시장을 교란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신도들이 어려운 실태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보시한 불사금으로 삼존불상을 모신 대구의 모사찰이나 창원 모 사찰의 사천왕상과 목백화 불상 등이 모두 수입품이란 사실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불교미술의 발전이자 최대소비처인 사찰에서 우리의 전통미술품 대신 수입품을 선택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불교미술계가 처한 위급상황을 단적

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최근에는 우리 초(草)와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만들거나, 불상같은 경우 목재만 수입해온 상태에서 일괄부분만 우리나라에서 조각하여 우리나라 작품과의 차이를 줄여보자는 의도로 앞으로 더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 미술계를 파괴할거라 보여진다.

우리 불교미술의 근간을 흔드는 일일요 우리 나라 전통문화의 맥이 단절될지도 모르는 위기가 이자 전통공예인의 생존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에 틀림없다. 수입된 불상이나 미술품들이

속 값싸고 질 낮은 수입품들에 밀려 설 자리를 잃는다면 뒤를 이어 우리의 전통의 맥을 잇겠다고 나서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가족이나 손님과 관련한 일지라도 찾는 시대에 더 이상 우리의 옛 일을 전수 받았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이 또한 전통의 맥이 끊기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 나라의 전통과 문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누가 어찌 만들든 끝내 훔내내나고 전통예술이 될 수도 없다. 우리 불교미술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작품 한 작품에 모든 정열과 혼을 불살랐던 선대 장인들의 뜻과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그러한 장인들의 작품을 아끼고 사랑했던 국가와 불교계의 정책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한 전통미술품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을 만들고 문화재가 되고 후손들의 빛나는 문화유산이 되어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랜 역사와 더불어 찬란히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되살려 후대에 물려주는 일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임무이자 의무이다.

일반인들의 커다란 관심과 박수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전통공예에 몸담고 있는 우리 공예인들이 울곧은 장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창조를 걸을 수 있도록 사찰에서 무분별한 외국 불교미술품들의 수입을 자체로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수 십년 길고 닦은 솜씨로 빛은 장인들의 작품이 앞으로는 계속

속 값싸고 질 낮은 수입품들에 밀려 설 자리를 잃는다면 뒤를 이어 우리의 전통의 맥을 잇겠다고 나서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가족이나 손님과 관련한 일지라도 찾는 시대에 더 이상 우리의 옛 일을 전수 받았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이 또한 전통의 맥이 끊기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 나라의 전통과 문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누가 어찌 만들든 끝내 훔내내나고 전통예술이 될 수도 없다. 우리 불교미술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작품 한 작품에 모든 정열과 혼을 불살랐던 선대 장인들의 뜻과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그러한 장인들의 작품을 아끼고 사랑했던 국가와 불교계의 정책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한 전통미술품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을 만들고 문화재가 되고 후손들의 빛나는 문화유산이 되어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랜 역사와 더불어 찬란히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되살려 후대에 물려주는 일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임무이자 의무이다.

일반인들의 커다란 관심과 박수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전통공예에 몸담고 있는 우리 공예인들이 울곧은 장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창조를 걸을 수 있도록 사찰에서 무분별한 외국 불교미술품들의 수입을 자체로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수 십년 길고 닦은 솜씨로 빛은 장인들의 작품이 앞으로는 계속

불사는 ‘값’ 아닌 ‘얼과 맥’으로 해야

우리의 전통미술품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어 우리의 전통불교미술품인양 행세하고 또 그대로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는 일은 우리의 문화 유산 기반 자체가 붕괴되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한낱 상품에 불과한 영성하고 질 낮은 수입품이,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해야 할 어린 학생들의 눈에 우리의 전통 미술품으로 오인되어 작가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빼어난 전통미술품이 아닌 수입품에 학생들의 눈높이가 맞춰진다면 전통문화의 발전은 커녕 퇴보하여 수준의 저하가 예상된다.

또한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수 십년 길고 닦은 솜씨로 빛은 장인들의 작품이 앞으로는 계속

‘연대’ 민영 심민섭



궁중비법 사주명리 학인모집 (구, 성수철학원)

본 학회는 궁중비법 사주명리 연구로 전국 최대의 회원 양성 기관이며 현재까지 200여곳에서 회원님들이 성황리 활동중이며 특히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육기관으로써 처음 배우실분, 해도해도 안되는 분을 위하여 1개월(주간)/3개월(야간, 주2회)수강하시면 완벽한 비법으로 눈치볼 필요없이 100% 책임보장. 개업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학회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시험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수여함

안 내

- 모집인원 : 수시모집
●교육기간 :
◆1개월 완성반(주간, 월 ~ 금)
◆3개월 완성반(주, 2회)
④ 월 · 화반 ⑤ 수 · 목반 (시간 : 오후 7~9시)
●지도교수 · 강사 : 백은 성수(본학회 회장)
대각 스님(금강불심원) 백궁, 봉계, 도영
●교육장소 : 본 학회 2층 강의실 (최고시설완비)
※ 무료특강 10월 5일(화) 저녁 6시 30분
※ 금강불심원(본 학회 직할) 대각스님(053-425-7875)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살림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목조 건축물 (보수, 복원, 보존)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증발래, 한계미 목재부식, 기와방수 등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한계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증발래살충
● 목재 복원 시스템 ● 목재, 석재, 기와방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전용(부식)방부제
● 기타공사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대) FAX. (031)451-6238
HP. 011-747-2111

하기척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 짜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지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책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언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짜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생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1334-9490, 334-9491 야간 : 0311706-3060